

해남읍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 '속도'

내년 말 준공 목표...청년몰 등 지상2층 새단장

현재 철거 85% 진행...마트형 쾌적한 쇼핑 기대

노후화된 해남읍 매일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매일시장 본 동의 상인들이 임시 시장 등으로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7월부터 건물을 철거하는 등 편입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서고 있다.

현재 기존 건물 철거는 85% 정도 진행된 상태로 오는 11월 경 건축공사에 착공, 1년여 공사기간을 거쳐 2021년 10월 신축건물을 준공할 예정이다.

매일시장 현대화사업은 토지보상비와 건축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는 164억원을 투입, 연면적 2,321㎡, 지상 2층 규모의 시장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 1층은 상설점

포 53개소, 2층에는 청년몰, 매일시장 상인회 사무실과 휴게공간 등이 들어선다. 하천변에 있는 가설점포는 완공 후 입점할 예정이다.

해남읍 매일시장은 튀김과 통닭 판매 코너가 밀집해 있고 김치, 수산물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이번 신축될 시장은 마트형으로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취약점으로 꼽히는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32면 규모의 주차공간도 확보하여 인근 주변 확보된 흉교 주차장 등과 더불어 매일시장을 찾는 이용



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해남읍 매일시장은 2016년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된 후 공설화 과정과 일부 소유자들의 매매 거부로 부지매입에 난항을 겪다가 2019년 12월 토지이전이 완료되면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참좋은된장 강진토하졌, 농식품 가공 공모 최종 선정...사업비 1억

맛·영양 뛰어난 저염식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0년도 농식품 제조가공분야 공모'에 전남 강진군의 참좋은된장 강진토하졌(대표 박정임)이 최종 선정돼 1억 원을 지원받는다. 농식품 제조가공 분야 공모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6차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 유지를 활성화해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가공공장을 구축하고 영양과 맛이 뛰어난 저염식 웰빙 된장 생산 기반시설 확충하기 위해 사업을 신청했다. 일반적으로 된장은 매주에 소금물을 섞어 발효시켜 장을 담근 뒤 간장을 떼내고 남은 건더기로 만들지만, 참좋은된장은 간장으로 빼지 않고 오롯이 된장만을 위해 콩을 사용한다.

참좋은된장 강진토하졌은 2012년 설립돼 저염 숙성한 토하졌을 판매했다. 2015년 한국인의 밥상 TV 프로그램 출연 등 각종 방송 출연을 통해 전국에 홍보됐으며 대기업, 관공서 등에 대량 납품해 우수한 품질이 입소문이 나 유명세가 따르고 있다.

조선이공대학 식품영양학부 조정일 교수의 도움으로 2017년 말부터 발효식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된 된장을 유통 시판했다. 100% 국내산 재료를



활용해 생산된 된장에는 유익균을 넣어 완전한 밀폐를 통해 두 번 발효하며, 특히 삶은 콩에 소량의 소금과 특히 중균을 접종하여 염분을 줄이고 감칠맛을 살렸다.

'참좋은된장 강진토하졌'은 2012년부터 '강진토하졌'으로 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2019년 '참좋은된장 강진토하졌'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장류를 생산 품목으로 추가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가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참좋은된장에서 생산하는 된장은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 학교급식 공급품목으로 선정돼 앞으로 관내 55개 학교에 납품될 예정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힘써왔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농식품 가공·유통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 수산식품 해외 판촉전' 미국 LA서 개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수출 판로 확대 노력



완도군은 8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미국 LA 한남체인 2곳(플러튼점, S-MART 토렌스점)에서 '완도 수산식품 해외 판촉

전'을 개최한다.

이번 판촉전은 미국 대형 유통매장과 연계하여 완도 수산물 해외시장 판로 확대와 2021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판촉전에는 완도금일수협과 완도전북수협, 완도바다식품, 바다향기, 바다명가, 완도매생이협동조합에서 참여했으며, 냉동 전복과 전복죽, 해조 국수, 건 매생이, 해조류 가공품 등을 선보인다.

이중 완도금일수협과 바다명가, 완도 매생이협동조합은 이번 판촉전을 통해 처음으로 미국 판로를 개척하게 됐다.

'완도 수산식품 해외 판촉전'이 개최되는 한남체인은 한국산 농수산물품을 유통하고, 미국 현지에서 8개의 체인점을 둔 대형 유통업체로 주요 고객은 한인과 중화권 소비자들이다.

판촉전은 한남체인 내 전라남도

상설 판매장을 오랫동안 직접 운영해 온 미국 현지 식품바이어 키트레이딩 (KHEE TRADING INC·유돈희 대표)에서 주관한다. 키트레이딩은 판촉전을 위해 완도군 수산 식품 약 10만 불(한화 1억 2천만 원 가량)의 물량을 수입하였다.

지난해 9월에는 '2019 완도군 미국 LA 수출상담회'에 참가하였으며, 완도전북수협회사와 100만 불의 수출 계약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수출 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판촉 행사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시장 개척에 제약이 있지만 앞으로 현지 바이어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촉 프로모션을 베트남과 미국, 유럽 등지에서 꾸준히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장흥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작가팀 공모

장흥군은 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 조성을 위해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작가팀 공모

를 추진한다.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장흥

군이 주관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협력한다.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8천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공미

술 프로젝트로 장흥군에서는 1개의 프로젝트가 4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지로는 장흥의 주요 관광지인 탐진강변, 토요시장, 정남진전망대 등이 선정됐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강진군은 지난 11일 '2018 마량지구'와 '2019 군동 평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종이도면으로 만든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장기 국책 사업이다.

강진군 경계결정위원회는 마량지구(마량면 마량리 987번지 일원 158,690.7㎡) 490필지와 군동 평리

지구(군동면 라천리 64-3번지 일원 111,699.5㎡) 216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결정기준에 따라 설정된 경계

를 심의·의결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군 민원봉사과(061-430-3792~4)로 제출해야 한다.

강진=김영일 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